

본업·인프라·그룹 총력전...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도약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이끌어 온 SK텔레콤이 통신사에서 인공지능(AI) 기업으로 탈바꿈한다. 지향점은 'AI 네이티브 컴퍼니'다. 앞서 2022년 제시한 'AI 컴퍼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다.

본업인 통신 사업은 물론 회사 운영 시스템이 AI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전환하고,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을 회사의 글로벌 사업이 되도록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외부 기술과 그룹 역량을 흡수하는 사업 확장력도 높게 평가된다. SK그룹 내에서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독보적으로 수행하며 AI 생태계를 넓히고 있다. 여기에 전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힘이 또 하나의 경쟁력이다.



SK텔레콤



◆ 통신 본업부터 업무 방식까지 'AI 네이티브' 전환 가속

SK텔레콤의 AI 전환은 통신 시스템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올해 3월 통신 서비스 근간인 통합전산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자율 운영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객 서비스와 직결되는 과제다. 통합시스템 내 영업전산, 회선관리, 과금시스템 등을 AI 중심으로 구축하면 요금제와 멤버십 등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전산망·조직 체질, AI 중심 대개편 AI 에이전트 인력 20%까지 육성

2035년까지 전국 AIDC 조성 목표 AIDC 전담 법인 'SK하이퍼' 설립 SK호라이즌 신설로 3조 자금 수혈

또한 네트워크 운영 주체를 사람에서 AI로 전환해 무선 품질 관리, 트래픽 제어 등 통신 품질과 관련된 환경을 자율화한다. AI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운영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관리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임직원들의 업무 방식도 바뀐다. 올해부터 전 구성원이 AI 중심으로 일하도록 3단계 육성 체계를 운영한다. 각 조직은 AX 디자인 캠프→AX 프론티어→AX 부트캠프 순으로 교육 과정을 거친다. 올해 말까지 전체 인력의 20%가 AI 에이전트 개발 역량을 갖추는게 목표다.

◆ AI 기업 도약 위해 사내 독립조직 중심으로 잇단 재편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AI의 사업화'다. 통신 사업과 AI 사업 전문 조직을 동일 선상에 놓고 투트랙 체제를 구축한 게 시작이다. 지난 10월 출범한 정재현 대표 체제에서 유경상·정석근 CIC장이 AI 사내독립기업(CIC)을 공동지휘하고, 한명진 사장이 MNO CIC를 맡아 통신 사업을 총괄한다.

사업 모델은 AI 데이터 센터다. SK그룹이 직접 나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총 비용 1000억원을 투입, 2035년까지 전국에 AIDC 클러스터를 15GW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SK텔레콤도 본격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이 달에만 두 번에 걸쳐 조직을 재구성했다. SK텔레콤은 7500억원을 출자해 AIDC 전담 법인 SK하이퍼를 설립하고 회사 내 AI 사내독립기업(CIC) 공동 대표를 맡은 정석근 CIC장을 수장으로 앉혔다. SK그룹의 AI 인프라 계획이 구체화 되자, 그룹 내 흩어진 AI 인프라 역량을 결합하려는 행보다.

이후 기존 데이터 센터(IDC) 운영 주체인 SK브로드밴드를 존속회사로, SK호라이즌을 신설회사로 인적분할 하면서 경영 효율화에 나섰다. SK호라이즌 대표는 김성수 SK브로드밴드 사장이 겸임하며 오는 2027년 1단계 구축이 완료되는 울산 AI DC 신사업과 초저지연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해저케이블 사업을 총괄한다.

이로써 대규모 AI DC 사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실제로 SK호

라이즌은 투자자 유치에 성공하며 SK호라이즌은 3조원 규모의 외부 자금을 수혈받게 됐다.

풀스택 AI 구현 위해 스타트업 투자 사피온코리아·리벨리온 합병 추진

독자 AI 모델 사업 정부 평가 통과 엔비디아와 그룹 차원 생태계 구축

◆ 스타트업 투자하고 SK그룹 역량 총결집... AI 기업 도약

SK텔레콤의 AI 생태계 확장은 이같은 행보를 뒷받침한다. 그 동안 내부 역량에 더해 SK그룹사와 스타트업, 외부 개발자 생태계를 연결해오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개발자 커뮤니티 플랫폼 '데보션'은 SK하이닉스와 SK AX, SK브로드밴드 등 그룹 내 ICT 계열사 개발자가 참여 중이다.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했으며 외부 개발자와 연계한 스타디 프로그램 '데보션 오픈랩'을 신설해 기술 교류에서 개발 협력으로 확장했다.

특히 풀스택 AI 구현을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AI 인프라에 필수적인 AI 가속기, 거대 언어모델(LLM) 등을 전략적 협력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일례로 SK텔레콤은 2023년부터 리벨리온에 투자를 지속하다가 이듬해 SK텔레콤 내부 연구개발 조직에서 분사한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의 합병을 추진해왔다. 이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정재현 SKT CEO

투자자로 나서며 올리는 CPU와 혼합한 AI 서버 솔루션을 공동 개발했다.

미국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는 지난 8월 약 1400억원을 들여 추가 지분을 매입했다. AI 데이터센터에 차세대 GPU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2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자체 AI 모델 경쟁력도 입증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국민 AI 서비스 '모두의 AI'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AI 주권 확보를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 평가도 통과했다. 특히 독파모 사업에서 정부 평가를 통해 SK텔레콤의 '에이엑스 케이투'가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를 제조·금융 등 국내 주요 산업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SK그룹의 제조 역량도 힘을 보탠다. SK하이닉스의 HBM과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반도체부터 AI 인프라까지 그룹 차원의 AI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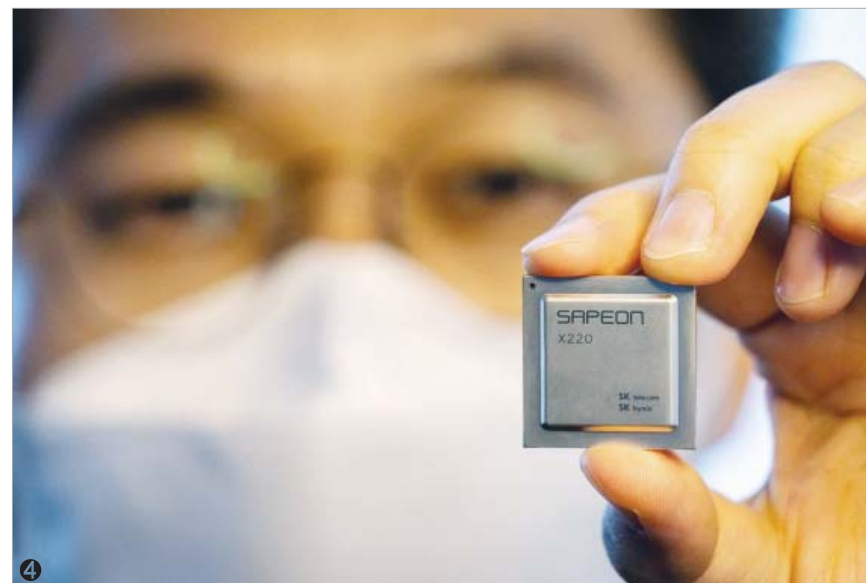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AI 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통신사의 경쟁력을 AI 인프라로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확보하는게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선결 과제다. 이에 올해 6월에는 엔비디아와 GW급 AI 팩토리·클라우드 구축을 공동 추진하며 아시아 AI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SK텔레콤의 변화는 계속 될 전망이다. 정재현 SK텔레콤 CEO는 올해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부터 CEO의 C를 체인지로 바꾼다"며 "앞으로 저의 우리 회사의 변화관리 최고책임자"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① 지난 9일 서울 중구 SKT T타워 수팩스홀에서 SKT '모두의 AI 컨소시엄' 출범식이 열렸다. ②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③ 울산 AI 데이터센터 조감도. ④ SK텔레콤의 사피온. /SK텔레콤